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유형으로서 자연융합형 공간에 관한 사례연구

이재민[†], 권기창^{**}

A Case Study on the Natural Convergence Space as a New Type of Complex Cultural Space

Jae-Min Lee[†], Ki-Chang Kwon^{**}

ABSTRACT

Recently, alleys, villages and traditional market spaces have been recreated as complex cultural spaces due to urban renewal or village community policies. However, previous studies only refer to buildings such as museums and libraries in dealing with complex cultural sp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ecreated complex cultural space as a natural convergence type and analyze its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establish the concept and type of the newly created complex cultural space. For this study, Busan Bosu-dong Bookstores Alley, Daegu Kim Gwangseok-street, Andong Traditional Market and Andong Shin-sedong Mural Village were selected as research exampl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atural convergence space reflects the locality of the contents constituting the space, and the various values are converged. And this type of space is being reborn as an advanced case of urban regeneration and serves as a representative tourist destination in the region. As a next study of this study, we proposed social studies such as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Key words: Complex Cultural Space, Natural Convergence Space, Regional Contents, Urban Renewal, Village Community Activities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최근 지역의 골목, 마을, 시장과 같은 일상공간이 다채로운 무늬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과거 이러한 공간은 단순히 이동을 하거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었으며, 생업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기능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공간은 한국전쟁 당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피해를 입어 복구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 같은 공간의 물리적 경관이 정비되어 사람들의 삶을 응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골목과 마을, 시장은 인간의 실존과 역사, 문화적 경험과 그 기억의 실재를 규정하거나 또는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의 장소성을 대표한 공간으로 기능하였다(박승희, 2013). 이러한 공간은 한국인의 삶이 서려있는 공간이며 더 나아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하였다(윤재홍, 2002).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도심재생 운동, 마을공동체 운동,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등 일상적인 공간에 대한 공동체성의 회복과 산업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

* Corresponding Author: Ki-Chang, Kwon, Address: (36729) Gyeongdong-ro 1375, Andong-si, Gyeongsangbukdo, Korea, TEL: +82-10-2819-7414, FAX: +82-54-820-6383, E-mail: kwon0819@daum.net
Receipt date: Aug. 20, 2018, Revision date: Sep. 18, 2018
Approval date: Oct. 25, 2018

[†] Dept of Contents Converg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jaymi@nate.com)

^{**} Dept of Contents Converg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지역의 스토리를 발굴하거나, 새롭게 창조하여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장소마케팅 또는 공간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이는 일상공간에 내재된 기억을 활용하여 콘텐츠로 활용하기도 하며, 새로운 기억을 창출하여 콘텐츠로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노창현, 2018).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골목·마을·시장이 문화예술·관광·교육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이란 문화·사회·유희·도시·교통·교육 등 여러 관점에서 연계되어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된 것이다(김아영, 2013). 우리나라에서 복합문화공간은 20세기 후반 복합쇼핑몰(Mall)이 도시민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대표적인 도시여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이승우, 2003). 이에 학계에서도 지역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비롯하여 지역의 쇼핑, 문화예술, 관광, 커뮤니티 기능 등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연구된 복합문화공간은 주로 ‘시설물’에 국한되고 있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박아현(2014)은 “공연·전시·복지·교육 등 전반적인 문화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지경애(2014)는 “광장, 전시시설, 문화서비스시설, 교통시설 등을 한 장소에 밀집시켜 문화시설에 다양한 관람·전시·교육·상업시설을 복합”시키는 시설물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윤은경·이동우(2015)는 메가 몰(Mega Mall)이나 원 스톱 쇼핑몰(One-Stop Shopping Mall)과 같이 “동일지대에 두 분야의 시설이 기능적인 연계가 이루어졌을 때 물리적인 복합화로써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고찰하였다. 이외에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2), 남덕우(2003), 이지혜(2006), 조윤정(2014), 김아영(2013) 등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시설물로 국한시켜 유형화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는 골목, 마을, 시장 공간 등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새롭게 정립하는 본 연구는 매우 적절한 시도이다.

본 연구는 도심재생, 마을공동체 운동,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등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실천 속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마을, 골목, 시장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광석 거리(대구)·보수동 책방골목(부산)·구시장 점담거리(안동)·신세동 벽화마을(안동)을 연구사례로 선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이 같은 공간을 새롭게 정의하고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에 대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의 유형을 ‘자연융합형’ 공간으로 명명하고 유형화하고자 한다. 자연융합형 공간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발생하여, 문화·예술·공동체 등이 융·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새롭게 재생산 되는 공간을 의미한다(이재민,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연융합형 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 복합문화공간의 개념과 유형

복합문화공간은 공연·전시·복지·교육 등 전반적인 문화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가리키며, 이는 다목적 공간의 성격들로 총체적인 문화예술을 영위하는 시설을 의미한다(지경애, 2014). 여기서의 ‘복합’은 단순하게 여러 기능을 가진 공간의 배치가 아니라, 상호간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문화생산자와 문화향유자를 연결하는 총체적 기능요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임종훈·전재현, 2014). 이 같은 복합문화공간은 문화, 예술, 관광 등이 융합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정체성이 반영되어 있는 공간으로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복합문화공간의 유형은 연구자들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리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2)은 복합문화공간을 전시시설, 공연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교육보존시설, 커뮤니티시설로 분류하였다. 남덕우(2003)는 복합문화공간을 전

Table 1. Types of complex cultural space by researchers

Researcher(year)	Types of complex cultural space				
ARTE(1992)	Exhibition facilities	Performing facilities	Cultural extension facility	Education preservation facility	Community facilities
Nam(2003)	Exhibition space	Performing arts space		Information center	Viewing space
Lee(2006)	Exhibition space	Performing space		Experience space	Event space
Cho(2013)	Literary hall type		Commercial space type	Alternative space type	
Park(2014)	Literary hall type		Commercial space type	Entertainment-oriented type	

시공간, 공연예술공간, 정보센터, 관람공간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지혜(2006)는 전시공간, 공연공간, 체험공간, 이벤트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조운정(2013)은 문예회관형, 상업공간형, 대안공간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박아현(2014)은 문예회관형, 상업공간형, 엔터테인먼트 중심형으로 분류하였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2), 남덕우(2003), 이지혜(2006)의 연구에서는 전시, 공연, 관람, 이벤트 등과 같이 복합문화공간의 세부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면, 조운정(2013)과 박아현(2014)은 전시, 공연, 관람 등을 포함하고 있는 다소 포괄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문예회관형은 연주회·연극·무용과 같이 공연과 전시,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 유형이다. 상업공간형은 소비공간을 중심으로 업무·휴식·주거공간이 더불어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쇼핑몰, 할인마트 등이 해당된다. 대안공간형은 정형화된 예술작품의 틀을 벗어나 도전적이며 기발한작품을 선보이는 공간이다. 이 같이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의 범주를 설정하는데 있어, 인위적으로 설계된 시설물만을 연구 대상으로 제한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이재민, 2017).

2.2 자연융합형 공간의 발생과 의미

이재민(2017)은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을 사례로 들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분석을 하였으며, 복합문화공간의 유형을 기존 문예회관형·상업공간형·대안공간형과 더불어 자연융합형 공간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자연융합형 공간을 “골목, 마을 등 주민들의 삶과 생업 등과 연관되어, 공간의 쇠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공간의 기능이 융합된 자연발생적인 공간”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예시로

책방골목, 문화마을 등을 제시하였다(이재민, 2017). 이재민(2017)의 논의는 자연융합형 공간을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둬나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공간이 연구 자료로서 논의 대상으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을 문화·예술·쇼핑 등의 기능이 복합화된 시설물만을 의미하고 있었으므로, 자연융합형의 공간은 논의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자연융합형의 공간을 유형화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에 대해 더욱 실제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자연융합형 공간에 대해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시대적 흐름에 의해 반드시 필요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사례지 배경

본 연구의 방법은 질적 사례연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연구주제인 자연융합형 공간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즉,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골목, 마을, 시장 등에서 현대적 활용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된 공간인 전형적 사례 4곳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지는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 대구 김광석 거리, 안동구 시장, 안동 신세동 벽화마을이다.

3.1.1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

보수동책방골목은 부산 보수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책방골목을 가리키며, 이 골목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책을 팔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교과서, 문제집 등 교

Table 2. Types of complex cultural space by researchers

	Bosudong-bookstores alley	Kimkwangseok-street	Andong traditional-market	Shinsedong mural-villagev
Origin	Formation by refugees during the Korean War(1950s)	Bangcheon-market project(2009)	Andong traditional-market project(2005)	Urban renewal project(2009)
location	Busan, Jung-gu	Daegu, Jung-gu	Andongsi, Junggu-dong	Andongsi, Junggu-dong

재시장이 형성되어 장사가 잘 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온라인, 대형서점으로 인해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약 70여 곳에 이르렀던 책방점포는 현재 41곳이 운영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골목의 쇠퇴를 극복하고자 문화관, 도서관, 미술 공간, 카페 등의 시설물과 축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이 실시하게 되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3.1.2 대구 김광석거리

김광석거리는 대구 대봉동 방천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 故김광석을 기리기 위해 그와 관련된 벽화, 오브제 작품 등을 설치한 문화거리이다. 대구 대봉동은 가수 김광석이 태어난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의 인물스토리를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창조되었다. 2009년 11팀의 예술 작가들은 김광석과 그의 작품들과 관련한 벽화를 그리고, 오브제 및 조각상을 설치하였으며, 버스킹 공연장, 라디오 방송국, 김광석 전시관(스토리 하우스) 등의 시설이 조성되어 현재는 대구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3.1.3 안동구시장

안동구시장은 조선후기에 형성되었으며, 해방 및 6.25전쟁 이후 인구 증가와 시가지 형성으로 정착하는 상인이 증가하였다. 1960년대 중반 안동백화점이 건립이후 지금의 점담골목을 비롯하여 보리밥, 과일, 채소, 옷, 특산품 시장으로 번성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안동구시장은 인근의 구도심과 함께 쇠퇴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위해 문화관광형 육성시장 사업,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 등의 정책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과 관광의 요소들이 시장에 투입되어 현재 안동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재창조되어 자리매김 하고 있다.

3.1.4 신세동 벽화마을

신세동 벽화마을은 안동 성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로, 도심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활동가들의 노력에 의해 조성되었다. 벽화는 2009년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그려지기 시작했으며, 벽화가 그려지기 전의 마을은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쓸쓸한 마을이었다. 2009년 벽화가 그려진 후, 2011년, 2014년 두 차례 더 마을에 그림이 그려졌으며, 카페, 산책길, 우물정자, 텃밭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을이다.

3.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각 연구대상의 문헌자료 및 현장답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한 문헌자료는 복합문화공간, 연구사례지와 관련한 논문, 보고서, 저서 등의 간행자료를 비롯하여 인터넷 신문기사,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복합문화공간의 기능과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소혜진(2011)은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문화향수 기회제공 · 삶의 질 향상 · 커뮤니티 활성화 · 예술창조 활동지원 · 지역 활성화로 도출하였으며, 지경애(2014)는 사회적 차원 · 문화적 차원 · 환경적 차원 · 경제적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조운정(2014)은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촉매 기능 · 대중의 문화적 욕구 충족기능 · 문화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기능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 기능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재민(2017)은 보수동 책방골목을 사례로 하는 연구에서 문화예술 향유의 기능 · 역사문화유산 보존의 기능 · 관광지로서의 기능 · 커뮤니티 형성의 기능 · 교육 공간의 기능으로 고찰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는 기존의 복합문화공간과 새로운 자연융합형 공

간을 다루고 있는 연구로서,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연융합형 공간의 특성을 콘텐츠의 지역성·다양한 가치의 융합·도심 재생의 선진사례·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4.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유형으로서 자연융합형 공간의 특성

4.1 콘텐츠의 지역성

본 연구 사례에서 나타나는 자연융합형 공간은 지역의 특수한 이야기를 복합문화공간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였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형성되어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는 곳으로, 이후 한국사회의 굵직한 사건의 경험을 관통하며 축적한 공간이다. 책방골목 주변에는 피난 현장의 역사를 나타내는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근대적인 역사성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책방골목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전시콘텐츠로 활용하여 책방골목 문화관 상설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문화프로그램에서 책방골목과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활용하여 공간콘텐츠로 구성하고 있다.

김광석 거리는 김광석이 대봉동에서 태어나 5세까지 성장한 이야기를 거리 콘텐츠로 활용하여 조성하였다. 김광석의 유년시절과 가수활동시절의 이야기를 벽화와 오브제로 표현하였으며, 2017년에 개관한 김광석 스토리 하우스는 김광석이 생활했던 주택을 그대로 복원하여, 전시·체험·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김

광석 거리는 김광석이 태어나고 자란 5년 동안의 시간에 착안하여, 김광석이라는 인물자원을 통해 공간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리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구시장은 찜닭골목, 보리밥 골목 등 구시장에서만 테마골목이 조성되어 있다. 찜닭골목의 콘텐츠인 안동찜닭은 1980년대 초반 발명된 퓨전음식이지만 안동의 지역성이 더해져 전통음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배영동, 2008). 이러한 찜닭골목은 원래 생닭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붙어 있는 ‘닭전’이라고 불리었으나, 찜닭의 개발과 성공에 의해 자연스레 찜닭골목으로 형성되었다. 이처럼 안동구시장은 쇠퇴되는 전통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인 시도를 하였으며, 찜닭이라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찜닭축제, 찜닭문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성을 담보하고 있다.

신세동 벽화마을은 신세동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달동네 이미지를 콘텐츠로 활용하여 벽화에 반영하고, 슬로건으로 정하여 도심재생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주민들과 A대학교 학생들, 지역출신의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였으며, 주민들의 얼굴 초상이나 신세동 7층 전탑을 활용하여 벽화에 그리게 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의 사례지인 네 곳 모두다 지역의 이야기 원형을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여 전시기획·공간기획·도심 재생 등에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 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한 이야기는 복합문화공간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Fig. 1. Bosu-dong Bookstore Alley Festival.



Fig. 2. Kim Gwang-seok Street.



Fig. 3. Andong Traditional Market Festival.



Fig. 4. Shin-se dong mural village.

4.2 다양한 가치의 융합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자연융합형 공간은 다양한 가치가 융합되어 표현되고 있다. 우선, 보수동 책방골목은 책방골목 문화관·어린이 도서관·보수동 벽화마을·셔터 그래피티 등의 하드웨어 요소와 책방골목 축제 프로그램·문화관 및 도서관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요소가 문화예술 향유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원형이 보존된 골목은 피난 당시의 상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어 역사문화 유산으로서 보존의 기능과 도서관, 책방 등이 합하고 있는 교육공간의 기능 등이 한데 모여 융합되어 표현되고 있다.

김광석 거리는 김광석 스토리 하우스·라디오 방송국, 김광석 벽화 및 오브제 등의 하드웨어 요소와 대봉문화마을 정기공연·김광석길 야외공연 및 거리공연·프리마켓 등의 소프트웨어 요소가 문화예술, 전시, 체험, 관광 등의 기능이 융합되어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동구시장에서도 짬뽕골목, 문화의 거리, 짬뽕 축제 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소에서 문화예술, 관광, 음식, 역사 등이 융합되어 표현되고 있다. 신세동 벽화마을에서도 월영애 장터, 벽화, 텃밭, 축제 등에서 쇼핑, 공동체 문화, 관광 등이 융합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자연융합형 공간은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요소 및 소프트웨어 요소를 통해 문화예술, 관광, 전시, 체험, 공동체 등의 기능이 다양하게 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삶과 생업의 기능을 했던 마을·거리·시장 등의 공간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다양한 기능과 특성이 합이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4.3 도심재생의 선진사례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자연융합형 공간은 구도심 지역의 도심재생 선진사례로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지인 보수동 책방골목이 속해 있는 부산시 중구, 김광석 거리가 있는 대구 방천시장, 안동 구시장과 신세동 벽화마을이 속한 안동원도심은 모두 각 도시에서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1990년대 이전까지 교재시장의 중심상권으로서 기능하였으나, 온라인 서점 및 대형서점의 등장·국민들의 독서량 감소 등으로 쇠퇴기를 겪게 되었다. 70여 곳에 이르던 책방골목의 점포는 40여 곳으로 감소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책방골목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재창조되었으며, 다시 골목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손님이 없던 책방골목이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책방골목의 이러한 시도가 도심재생의 선진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김광석 거리도 방천시장의 쇠퇴를 극복하고 구도심 지역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전통시장 프로젝트 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안동구시장도 역시 문화관광형 육성시장 사업·글로벌 명품시장 사업 등의 정책으로 전통시장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세동 벽화마을이 속해있는 안동시 중구동 일원은 과거 상권의 중심지 기능을 했던 원도심 지역으로 현재 도심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신세동 벽화마을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 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각각의 골목과 거리, 시장과 마을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 되면서 주변 구도심 지역의 기능이 회복되

는 도심재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지역의 대표 관광지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자연융합형 공간은 각각 속해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공간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2005년 변영회에서 책방골목 문화축제를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원도심골목축제로 물리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12년에는 ‘책’이라는 특수한 테마와 골목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 인근의 국제시장·영도다리·40계단 등 근대역사자원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으로 인하여 부산 슬로시티 관광명소 1호로 지정되었다¹⁾. 그리고 보행길 정비, 휴무일 자율제 실시, 책방골목 여행상품 개발 등은 보수동 책방골목이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광석거리는 김광석의 노래를 듣고, 벽화를 구경하는 등의 즐길 거리로 관광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한국관광의 별, 열린 관광지, 2017년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대구지역 관광선호도 21.2%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대구지역 대표 관광지로서 기능하고 있다.²⁾ 안동구시장은 안동지역의 상거래 중심지로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특히 코레일과 MOU를 맺고 내일로 여행상품을 개발하였다. 신세동 벽화마을도 경상북도 대표 관광지로 입지를 굳히고,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할매네 점빵’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복합문화공간의 개념과 유형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을 ‘문화, 예술, 쇼핑, 체험 등이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는 시설물’이라 국한하였으며, 이에 대해 기능별로 유형화하였다. 하지만 최근 사회에서는 도심의 쇠퇴를 극복,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역 공동체의 회복 등 다양한

이유로 도심의 골목·마을·시장 등의 공간에 문화와 예술, 관광, 전시 및 체험 등을 접목하고 있다. 이에 과거 삶과 생업의 공간으로만 기능했던 공간들은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재창조 되는 복합문화공간의 패러다임 속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지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하였다. 즉,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자연융합형 공간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특징과 기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 되고 있는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 대구 김광석 거리, 안동 구시장, 안동 신세동 벽화마을을 연구사례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자연융합형 공간은 네 가지의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공간을 구성하는 콘텐츠는 공간이 위치한 지역의 정체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 공간의 기획과정에서부터 지역의 역사, 인물, 음식, 문화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둘째, 자연융합형 공간의 콘텐츠는 문화, 예술, 관광, 전시, 체험, 교육, 역사 등 다양한 가치가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연융합형 공간은 도심, 마을, 전통시장의 쇠퇴를 극복하고자 도심재생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현재는 도심재생의 선진사례로 꼽히고 있다. 넷째, 새롭게 재창조 된 자연융합형의 공간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대표적인 관광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거리, 시장, 마을 등 일상적인 공간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복합문화공간을 다루고 있는 학문적 영역에서 제외되었던 이러한 공간들에 대한 유형은 자연융합형으로 제안하고, 그에 대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재정립하였다는 데서 학술적인 독창성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연구 사례에 대해 면밀한 양적 또는 질적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이다. 이 같은 공간에 대해 통계적 방법을 통한 양적연구, 심층면담 등을 활용한 질적연구 등과 같이 심도 있는 사회과학적 분석은 향후 후속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REFERENCE

[1] H. Park, “The Study of Storytelling an Alley in the Original Downtown Area of Daegu,”

1) 부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http://www.bsjunggu.go.kr/news/board/view.junggu>
 2) <http://www.newsfreez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7>

- Journal of Hanminjok Emunhak*, Vol. 63, pp. 403-429, 2013.
- [2] J. Yun, "Pädagogoche Anthropologie of Galmok and Neighborhood,"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 27, pp. 73-90, 2002.
- [3] A. Kim, *A Study on Complex Cultural Space Introducing Experiences of Slobbism*, Master's Thesis of Hongik University of Interior Design, 2013.
- [4] S. Lee, *The Role of Commercial Facilities and the Utilization Characteristics as Urban Leisure Space -Focusing on the Causal Structure Analysis of User's Behavior-*, Doctor's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Urban Design, 2003.
- [5] C. Noh, "The Contents Planning Using Memory Industry,"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1, No. 4, pp. 527-534, 2018
- [6] A. Park,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Types of Cultural Complex*, Master's Thesis of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of Culture and Arts Management, 2012.
- [7] K. Ji, *Study on the Design Management for Sustainable Complex Cultural Space -Focus on Dongdaemun Design Plaza-*, Master's Thesis of Sungkyunkwan University of Design Management, 2013.
- [8] Y. Yun and D. Lee, "Study on Complex Cultural Space using Modern Industry Heritage of Changsin-dong Sewing Alley," *Proceeding of Conferenc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pp. 167-172, 2015.
- [9] ARTE, *A Study on the Effective Utilization and Maximization of Cultural Space: Focusing on the Actual State of Operation of Major Cultural Space*, ARTE 91-9, 1992.
- [10] Duk-Woo Nam, *A Study on the Design of Cultural Complex Building Base on the Cultural Context*, Master's Thesis of Kong Ju National University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2003.
- [11] J. Lee, *A Design Proposal of Urban Cultural Complex Applying Hybrid Concept -The Renovation of Commercial Facilities in Gangnam-*, Master's Thesis of Hongik University of Architecture & Urban Design, 2006.
- [12] Y. Cho,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of Cultural Complexes and their Public Space Programs*, Master's Thesis of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of Culture and Arts Management, 2014.
- [13] J. Lee, "Functionality Analysis of a Complex Cultural Space Bosu-dong Bookstores Alle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8, No. 6, pp. 735-749.
- [14] J. Lim and J. Chun, "A Study on Multi-cultural Space Where Applied Healing Concept,"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Vol. 9, No. 4, pp. 257-265.
- [15] H. Soh,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ervice Quality on Customer Creation -In the Case of the Multi-complex*, Master's Thesis of Dankook University of Culture, Art and Design, 2011.
- [16] Busan Jung-gu, <http://www.bsjunggu.go.kr/news/board/view.junggu>(accessed Aug., 17, 2018).
- [17] Rediscovery of Daegu(2018),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7> (accessed Aug, 17, 2018).



이 재 민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박사
2018년~현재 안동대학교 융합콘
텐츠학과 강사, 문화산업
연구소 연구원, 칠곡인문
학마을 협동조합 위촉연구
원

관심분야: 지역문화공동체, 문화공간, 문화콘텐츠



권 기 창

1993년~1997년 안동과학대학교
사무자동화과 교수
1998년~2015년 경북도립대학교
지방행정과 교수
2015년~현재 안동대학교 한국문
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문화정책, 지역개발, 미디어